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7 ~ 12/3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앤파커스
3	알고 보면 관참은	마가	불광출판사	8	참선 잘하기	김형호	김영사
4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정전	한겨레출판사	9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독	비움과소통
5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용화	10	괴로운 어디에서 오는가	정영외선	휴



## 신라 점찰법회란 무엇인가

불교의 세계관인 업과 윤회 알게 해주는 법회



**신라 점찰법회와 신라인의 업·윤회 인식**  
박미선 지음  
해안 펴냄  
2만2천원

신라의 불교는 왕에 의해 공인되었으나, 왕과 귀족만을 위한 정치사상이 아닌 일반 백성과 노비까지도 신봉하는 종교로 자리 잡는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책은 '점찰법회'에서 그 단서를 찾고 있다.

현존하는 자료상에서는 이 법회가 삼국 중 신라에서만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며, 신라에 전해진 7세기 초부터 신라 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로 점찰보, 점찰예참, 육륜회, 과증법회 등 그 명칭이 달라 이 법회를 통해 신라불교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는 이유는 알 수 없는 사후에 대한 불안,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불교는 영혼이 불멸하지만 사후 내세에서는 현재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윤회적 세계관을 내세웠다. 나아가 그러한 윤회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인 '업(業)'이라고 역설했다. 이로써 신라인들은 보다 나은 세계로의 환생을 바라거나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했고, 이것은 왕에서 백성으로 이르기까지 모든 신라인의 염원이었다. 이 업·윤회사상이야말로 신라인들이 불교를 신봉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불교교리와 사상이 발전할수록 신라인들의 불교이해가 깊어지고, 이는 곧 업과 윤회에 대한 인식의 심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신라인들의 업과 윤회사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점찰법회이다.

점찰법회란 (점찰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무막대기를 던져서 과거의 업이 선한지 악한지를 관찰하며, 악할 경우 참회한 후 계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삼세의 과보를 알아보는 의식으로, 곧 불교의 세계관인 업과 윤회를 알게 해주는 법회라고 할 수 있다.

600년 중국에서 돌아온 원광(圓光)이 가서잡(현재 경북 청도)에 점찰보(占察寶)를 둔 것이 신라 점찰법회의 시작이다. '보(寶)'는 곡식이니 돈을 시주하여 본전은 남겨두고 이자로 이익이 되게 하는 것으로, 점찰보라는 것은 점찰법회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두었다는 의미이다. 당시 중국 광주(廣州)

등지에서는 과거의 선악 업을 점치는 탑찰법(塔幢法)이 유행했고, 장안(長安)에서는 실천 방식으로 무진장시(無盡藏施)라는 보시행을 강조하는 삼계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다만 (점찰경)은 황제의 명에 의해 유포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원광은 이 경전에 근거하기보다 중국에서 체험한 탑찰법과 무진장시를 표본으로 가서잡에 점찰보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원광이 실시한 점찰법은 과거의 선악 업을 관찰하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원광은 신라인에게 업과 윤회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서 보시를 강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점찰법회는 통일 후에 더욱 활발히 시행되었고, 8세기 중엽 진표(眞表)에 의해 신라만의 점찰법회를 확립했다.

점찰법회가 '점'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었으나, '여래장사상'이라는 불교의 심오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장신앙·미륵신앙 등과 결합하며 신라 왕경과 지방의 다양한 신분의 사람

**중국서 돌아온 원광의 '점찰보'가 시작**  
**신라의 국가적 종교되는데 결정적 역할**  
**8C 진표에 의해 신라만의 법회 확립**

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업·윤회를 설명하고 있었으므로 현재에서 악업을 제거하기 위한 참회나 선업을 위해 보시를 강조함으로써 자연히 신라인의 윤리의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점찰법회에서 신라불교가 수용 초기의 정치사상적 성격에서 종교·사회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점찰법회가 속세의 업과 과보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점찰법회와 연계된 지장신앙과 미륵신앙의 유행도 당연한 업·과보, 윤회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책은 점찰법회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신앙의 유행을 통해 신라인의 업·윤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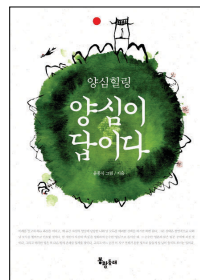
또한 신라인의 업·윤회사상의 변화는 불교가 어떻게 신라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불교가 전통사상과 문화로서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 '양심' 이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것

양심이 답이다

윤홍식 지음 · 그림 | 불광동래 펴냄 | 1만8천원



을 실감하고, 양심으로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것이다. '양심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이라는 것이 책의 요지다.

책은 '인간의 길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양심적인 삶의 실천을 위해 저자가 그동안 트위터에 올린 짧은 글들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홍익학당에 올렸던 글들, 양심콘서트에서 했던 강의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그 글들은 저자가 부처님을 비롯한 옛 현인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정리한 글과 현인들이 남긴 것들이다.

'양심'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도 흔치

않을 것이다. '양심'을 단순히 다양한 사회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변적인 도덕적 판단기준으로만 이해한다면, '양심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라는 저자의 주장에 동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양심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맹자의 글을 소개하며, 양심이란 이기적인 마음인 욕심을 잠시 내려놓을 때 느껴지는 맑고 밝은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욕망이나 이기심 등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양심이란 생각과 욕심, 감정을 초월한 나, 순수한 상태를 말하며, 개인이 생각하고 욕망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상태이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어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이나 종교, 사상에 따라 양심을 본심, 신성, 성령, 참나, logos, 초월적 자아, 선의지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양심(혹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건 혹은 부르지 않건 간에)은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 생각과 감정을 초월한 상태를 지칭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찾아가야만 비로소 '양심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양심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항상 양심을 찾고서 욕망과 괴로움을 바르게 다스리며, 양심의 힘을 이용하여 늘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함을 추구해 간다면 우리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으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

다고 확신한다.

"정치 경제 환경 사회 종교 등 어느 분야 하나도 아픈 소리를 내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주에서도 가장 아파하고 소외감에 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책은 '양심'이 해결해야 할, 현 문명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인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인류 스스로 겪게 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며, 그 부작용들로 인해 생긴 괴로움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있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단순한 이데올로기나 제도의 변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선'과 '양심'으로 자신에게 펼쳐진 우주를 스스로 경영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직관적이고도 강력한 지침을 전해줄 것이다.

또한 공자, 노자, 맹자, 예수, 붓다, 소크라테스 등의 성자들, 주희 왕양명으로부터 칸트와 김구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망라한 여러 철인과 현인들이 저자를 통해 인류를 격려한다. 글쓴이의 강연을 녹취한 글에는 QR코드를 첨부하여, 바로바로 저자의 생생한 유튜브 강의를 연결하여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자가 한지 전시회를 통해 전시한 그림도 함께 소개했는데, 마치 선화(禪畵)를 연상케 하는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글을 '보는' 흥취도 더해 갈 것이다. 또한 인터넷 카페 '홍익학당'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양심노트'의 양식도 제공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 우리불교 지켜낸 '실천불교' 연구

불교정화 선구자 청담대중사의 실천불교사상연구

진관 지음 | 초록 펴냄 | 2만원



청담 스님은 진주제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진주고등농림학교에 진학했다. 여류방학 때, 진주 비봉산 호국사에 갔다가 박포명 스님을 만나 불교와 인

연을 맺고 해인사, 백양사 등을 돌며 출가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졸업 후 25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배우고 이듬해 귀국하여 고성 옥천사(玉泉寺)에서 박한영 스님을 은사로 수계(受戒)하고 청담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광복 후에는 교단 재건과 불법 중흥을 위해 고성 문수암(文殊庵), 해인사 등지에서 대중을 교화하고 도제(徒弟)를 양성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종단의 제도를 역설하여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고, 그들이 해야 할 5개 조의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1954년 서울 선학원(禪學院)에서 전국비구승대회를 소집하여 36년 동안 조선에 전해진 일본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조선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해 가을 사찰이 청정도량으로 정화될 때까지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결의로 약 400명의 비구와 함께 단식했다.

이듬해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에 취임,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해인사 주지, 도선사(道詵寺) 주지, 동국학원 이사장을 거쳐 1966년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 제2대 종정, 전국신도회 총재, 조계종 장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68년 도선사에 호국참회원을 건립했고 1969년에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종단 탈퇴를 선언했다. 1970년 총무원장에 재임했고, 세계불교연합장로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71년 11월 15일 나이 69세, 법랍 46세로 원寂에 들었다.

책은 '서론', '청담 스님의 탄생과 조선불교의 태동', '일본 식민지 통치시대의 선학원 설립', '해방 이후의 대승보살정진과 참회정진', '청담의 불교정화운동과 개혁운동', '박정희 군정시대의 불교', '결론' 총 일곱 개의 장에서 청담 스님 시대의 시대적 배경, 스님의 개혁사상, 일본 조동종과의 관계, 조선총독부 치하에서의 한국불교, 해방 이후의 한국 불교, 불교정화운동, 박정희 군정시대의 한국불교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재완 기자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범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범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현 불 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스님이 쓴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이 작품이 세계명작이 되는 건 한국불교가 세계명작이 되는 것이다. 불자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소설! 스님이 쓴 소설! 재미있는 소설!

불자님이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가 이 책속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간화선 마스터! 금강경 마스터! 깨달음 마스터!** 당신 삶의 질이 확 UP 달라집니다.

이 세계는 당신의 성숙을 위해 당신을 끝없이 돕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세계는 내 모자란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주는구나.'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커 갑니다. 당신은 이 세계가 빛 (완성체·부처)으로 계획한 존재입니다. - 저자 석호스님의 메시지

※ 선물, 법보시용으로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지은이: 석호 A5(145×210) 291쪽 값 13,000원 ☎ 053) 253-1923 연화씨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및 전국불교서점 판매 중  
이 책의 홍보에 인생을 걸어보실 시·도별 책임자 1분씩 모십니다. (포교사 및 퇴직자 환영)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27 연화출판사 ☎ 011-9377-1923